

## 대학생의 흡연행위 유형에 대한 연구

김 문 실\*·김 애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이 호흡기 질환과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각종 암의 이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Lawrence, 1989; Koltke, 1988) 우리나라에서의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년층과 젊은 여성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전, 박, 김, 정, 1992).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75.4%, 여자의 경우는 7.6%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특히 20세를 전후해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됨이 여러연구에서 보고되어졌다(이, 서, 조, 1992; 김, 이, 각, 이, 윤, 1989; 서, 1988).

성인의 흡연양상은 흡연횟수나 흡연량이 많고 흡연기간이 길기 때문에 청소년에 비해 습관으로 고착되기 쉽고 중독이나 사회심리적 의존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김, 1987).

이렇게 이미 습관으로 고정된 성인의 흡연행위는 성인 흡연자의 70~90%가 금연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신, 1992; 이, 외, 1992) 쉽게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특히 18~34세 연령층은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금

연 성공율이 낮다(신, 1992).

이렇게 젊은 성인층이 금연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질병이 강력한 금연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젊은이의 경우 전생애의 인간발달을 통하여 볼 때 최고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시기이며 모든 신체기관들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므로 건강의 진가를 망각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낮다(김, 외, 1989; 전, 외, 1992).

그러나 현재의 젊은이들은 훗날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이며 젊은시절에 건강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평생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며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역할모델이 될수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의 흡연행위가 습관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돕는 금연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연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지식이나 관심, 흡연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한 개별화된 전략이 부족하고 의료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신, 1992).

Combs(1959)와 최(1971)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 다르게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행위의 주관적 구조라 하며 인간은 이러한 행위의 주관적 구조와 반대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맥을 같이하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여 흡연자의 흡연행위는 흡연자가 처한 사회적 맥락내에서 그들의 관심, 동기, 기대,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흡연행위는 개인에 따라 다양하며 독특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흡연자가 흡연행위에 대해 느끼는 행위의 주관적인 차원인 가치, 신념, 동기, 태도, 관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흡연행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지며 이러한 흡연행위의 주관적인 구조에 초점을 둔 금연전략이 확립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흡연에 대한 연구는 흡연자의 실태 조사연구(서, 1988 ; 이외, 1992 : 맹, 1988)와 흡연과 연관되는 질병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 외, 1970 ; 정의, 1980 : 홍, 1989)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흡연이 습관화 되어가고 금연동기가 낮은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그들의 흡연행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급증하는 흡연인구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김외, 1989).

Q 방법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주관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알고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행위의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이다(김, 1993).

또한 가설생성(abduction) 논리에 따라 주관적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관성을 객관화시킴으로서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간호학의 인간이해와 간호전략구축에 도움이 된다(김, 1993 ; 김, 1994).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파악하여 흡연행위의 유형을 규명함으로써 금연전략의 간호중재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대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프로그램 구축의 1차적 대안으로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가치, 신념, 태도를 통해 유형화 한다.
- 2)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로 파악되어진 각 유형별 특성을 서술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흡연은 양과 시작연령에 따라 폐암발생과 관계가 있는데 특히 젊은 나이인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25세에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의 폐암발생률은 3배가 된다(Anderson, 1985).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은 매일의 흡연량에 따라 증가하여 흡연을 중단할 경우 강력한 위험요소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금연하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율이 줄어들어 금연후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Anderson, 1985).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타인이 피우는 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는데 이를 간접흡연이라 한다(fielding, 1985). 이는 부모의 흡연으로 인한 자녀의 질병발생률, 임신기간중 모성의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 흡연하는 남편과 함께사는 부인의 폐암발생률과 관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가족을 위해 흡연자는 금연해야한다고 하였다(Hirayama, 1981).

위와 같이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연교육은 질병예방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한다.

금연은 가장 우선적인 예방대책이나 단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건강을 위한 흡연법이 제시되었다(최, 1967). 이는 흡입기간, 흡연 시작 연령, 흡입정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큰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방적 흡연법이란 21세가 될 때까지 금연해야 하며 연기는 깊숙이 빨아들이지 말며 하루 흡연량을 5개피 이하로 해야 하며 식전 흡연을 금하고 1년중 한달이상 흡연을 중단하고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을 뜻한다(이, 1987).

흡연행위와 관련되어 행해진 선행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흡연자 실태조사연구, 흡연행위관련연구, 금연전략과 관련된 연구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흡연실태조사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제시되어졌다.

한국성인의 흡연율은 20~39세 남자에게서 가장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고 있으며 남자대학생의 경우 흡연율은 55.7%~78%에 이르며 여대생의 경우 1.3~19%에 이르며 여대생의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서, 1988).

맹(1988)에 의하면 남자사망의 16.6%, 여자사망의 3.5%가 흡연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고 흡연관련성이 높은 암이나 만성퇴행성질환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이 지적되었다.

10여년전부터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흡연율은 50%이상 감소된 반면 한국의 경우 흡연율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전외, 1992).

흡연양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흡연은 연령, 성, 건강신념, 교육, 직업과 관련이 있고(Kirscht, 1987) 한국대학생의 경우 흡연동기는 정서적 안정추구를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금연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60%를 나타내어(김외, 1989) 중년이나 노년에 비해 금연의지가 낮음이 보고되었다.

김(1987)에 의하면 흡연자의 92%는 금연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중 대부분은 금연을 시도 해본 경험이 있고 금연동기는 질병을 가진 사람, 임신할 예정인 사람에게서 높고 젊은층은 오히려 금연동기가 약하다(전외, 1992).

대학생의 흡연은 청소년의 흡연에 비해 가족의 영향을 덜 받고(Gray, 1990)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흡연행위의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흡연은 사회적 불안정감과 관련되는 반면 여성흡연은 자기 확신, 사회경험, 반항심과 관련된다(Clayton, 1991). 국내에서 행해진 대학생의 흡연행위연구에서도 여대생의 흡연 동기는 남성흡연에 대한 반항심, 호기심과 관련되며(김, 김, 1997) 남자 대학생에 비해 금연계획을 덜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김외, 1989).

청소년에 비해 성인의 흡연은 흡연인구가 더 많고 흡연횟수나 흡연량이 많고 흡연기간이 길기 때문에 습관이나 중독상태를 초래하므로 흡연이 습관이 되기전에 금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김, 1987).

성인의 흡연양상은 습관적인형태, 니코틴중독이 심한 형태, 사회심리학적 의존도가 강한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김, 1987) 가정의학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양상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처음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20대이며(전외, 1992; 이외, 1992) 흡연동기는 남자의 경우는 호기심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건강상태를 좋게 느끼는 경우 금연을 시도하는것으로 나타났다(이외, 1992).

환자중 의사로 부터 금연권고를 받은 경우는 50%에도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나(신, 1992; 이외, 1992,) 일반성인은 물론 환자에게서조차 금연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연전략을 위한 연구들을 보면 금연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흡연에 대한 태도, 기대, 가치, 신

념, 의지를 고려해야 하며(Guilford, 1972) 대상자의 관심영역에 초점을 둔 금연프로그램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 1992).

금연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를 보면 금연을 위한 시청각 교육이 군인의 흡연행위를 변화시켰으며(지, 1989) 금연을 위한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니코틴의 금단증상인데 이는 금연 시작후 2-4일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그후 금단 증상이 약해지지만 금연후 10일정도에 두 번째 금단증상으로 신경과민, 우울증, 집중력 저하, 위장증상, 안절부절함, 불면증, 두통이 나타나 그 정도에 따라 니코틴 대체요법이 요구된다(이, 198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흡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흡연자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이며 금연실태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흡연이 습관화 되어지기 이전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기의 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문헌에서 20대 초반에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되고 특히 여대생의 흡연율이 증가되며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므로 오히려 금연에 대한 인식이 낮고 흡연이 습관화 되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므로 이들 흡연인구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이 제시되고 있다.

### III. 연구 과정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행위에 있어서 주관성은 행위에 대해 남에게 또는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행위와 관련되어 인간이 가지는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태도(attitude)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그 행위가 어떻게 보이는지의 지각적인 차원을 뜻한다(Stephenson, 1953; 홍, 1985).

본 연구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은 흡연행위에 대한 개인의 지각적인 차원으로 흡연행위에 대해 대학생이 가지는 기대, 흥미, 가치, 신념, 동기, 태도를 의미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목적이 한국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흡연행위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Q방

법론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a. Q 모집단(concourse) 구성

남녀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가치, 신념, 태도, 동기, 기대와 관련 된 진술문을 추출해내기 위한 심층면접을 행하였다. 면접은 비구조화된 개방식 질문을 사용하며 면접된 내용은 녹음하고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였다.

면접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연구자가 마음속에 가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흡연행위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 흡연행위를 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흡연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b. Q 표본의 선정

위의 단계에서 얻어진 진술문을 Q 모집단으로 보고 중복되지 않게 정리한 후 한국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개념 및 흡연행위와 관련된 가치, 신념, 태도, 동기, 기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진술문의 범주화를 행하였다.

각 범주를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자아참조적 진술문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표집방법을 이용해 38개 Q 표본을 선택하였다.

선택된 38개의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는 호기심에 장난삼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 같다.
2. 사람들이 흡연을 부정적으로 볼 때 나는 담배를 더욱 피고 싶다.
3. 사회는 금연자의 흡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4.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5. 여성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6. 여성흡연자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7.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8. 나는 다른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싶다.
9. 담배는 맛이 좋다.
10. 담배는 내 생활의 일부이다.
11. 식후에 피는 담배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술먹을 때 항상 담배가 피고 싶다.
13.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된다.
14. 담배를 피운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15. 나는 담배를 피면 집중이 잘되는 것 같다.
16. 텔레비전의 여성흡연장면은 꼴불견이다.

17.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는 참기가 괴롭다.
18. 남이 담배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
19.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방에서만 담배를 피게 된다.
20. 점심값이 없어 굶어도 담배는 사야된다.
21.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22. 담배는 체질에 맞아야만 필수 있다.
23. 내몸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
24. 흡연한다고 해서 더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25. 살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옳지 못하다.
26. 이성친구가 같이 담배를 피게 될 때 더 친하게 될 것 같다.
27.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까봐 걱정이 된다.
28. 흡연자가 담배피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
29. 한국도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30. 괴로움을 잊고 싶을 때 담배는 도움이 된다.
31. 담배를 숨어서 피 때 죄책감을 느낀다.
32.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단속은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3. 효과가 높은 금연교육은 흡연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34.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
35. 대중매체의 미화된 흡연장면은 흡연자를 증가시킬 것 같다.
36. 담배살 때 드는 돈이 아깝다.
37. 엄마가 되기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38. 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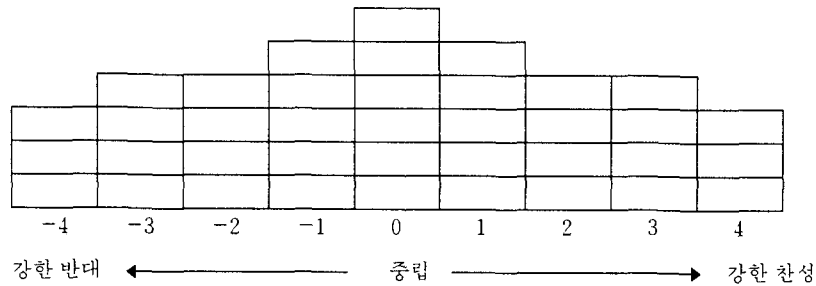
c.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 작성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5×7cm 카드에 인쇄한 후 연구대상자가 Q카드 분류시 사용할 Q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d. P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는 진술문의 수와 비슷한 표본의 수가 가장 이상적이므로 현재 흡연을 행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 30명을 선정하였다.

표집시 흡연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이 선정 되도록 이론적표집(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 Q표본의 분포도

e. Q분류과정

P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Q진술문을 Q분포도상에 강제분포방식으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흡연행위에 대한 조작적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다.

Q분류와 함께 Q표본의 분포도의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추가면접을 행하였다.

f.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이 분류한 내용을 점수화 한후 QUANAL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요인분석법으로 Q요인분석을 행하였다.

〈표 1〉

|             | type 1 | type 2 | type 3 |
|-------------|--------|--------|--------|
| eigen value | 10.03  | 3.56   | 1.89   |
| variance    | 33.45  | 11.87  | 6.31   |
| cumulative  | 33.45  | 45.32  | 51.63  |

〈표 2〉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

|        | type 1 | type 2 | type 3 |
|--------|--------|--------|--------|
| type 1 | 1.000  | .292   | .589   |
| type 2 | .292   | 1.000  | .542   |
| type 3 | .589   | .542   | 1.000  |

IV.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흡연행위의 유형

QUANAL program을 이용해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Q유형은 흡연행위에 대하여 비슷한 진술문을 선택한 대상자끼리 유형을 이루게 되며 각 유형 하나하나는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반영하며 흡연행위의 구조나 본질을 설명하게 하고 이해하게 한다.

3개의 유형은 전체변량의 51.63%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33.4%, 제2유형이 11.87%, 제3유형이 6.3%였다(표 1).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Q방법론에서는 각 요인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론이므로 각 요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표 2).

조사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제1유형이 12명, 제2유형이 10명, 제3유형이 8명으로 구성되며 각유형내에서 인자가 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 있어서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임을 나타낸다(표 3).

1) 제1유형 : 고착형

제1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남자가 4명, 여자가 8명이었고 금연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6명, 없는 사람이 6명이었다. 12명 중 6명이 대학교때부터 흡연을 시작했다고 하였으며 흡연 시작에 영향을 준 사람은 친구라고 응답하였다(표 3).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Z=2.05)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흡연자가 담배피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Z=1.62), 「술먹을 때 항상 담배가 피고 싶다」(Z=1.58), 「괴로움을 잊고 싶을 때 담배는 도움이 된다」(Z=1.44), 「여성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Z=1.43), 「남이 담배 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Z=1.15), 「흡연한다고 해서 더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Z=.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반면 제1유형의 대상자들이 가장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Z=-1.47)였고 그 다음은 「사회는 흡연자의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Z=-1.39), 「텔레비전의 여성 흡연 장면은 꼴불견이다」(Z=-1.32), 「한국도 미국처럼 담

〈표 3〉 유형별 구성원의 특성과 인자가중치

| 유형     | 변수 번호  | 인자 가중치 | 성별     | 전공계열 | 흡연시작 연령 | 금연 시도 경험 | 흡연시작에 영향을 준 사람 | 종교    | 거주형태     |
|--------|--------|--------|--------|------|---------|----------|----------------|-------|----------|
| type 1 | 30     | 1.5448 | 여      | 자연계  | 고등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29     | 1.4793 | 여      | 자연계  | 대학교     | 유        | 친구             | 천주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13     | 1.4154 | 여      | 예체능계 | 고등학교    | 무        | 친구             | 천주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18     | 1.3647 | 여      | 사회계  | 대학교     | 유        | 친구             | 무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7      | 1.2198 | 남      | 인문계  | 고등학교    | 유        | 친구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17     | 1.0433 | 여      | 인문계  | 대학교     | 무        | 스스로시작          | 무교    | 자취       |
|        | 6      | 1.0246 | 남      | 자연계  | 고등학교    | 무        | 친구             | 무교    | 하숙       |
|        | 22     | .9952  | 여      | 의학계  | 고등학교    | 무        | 친구             | 무교    | 자취       |
|        | 14     | .8788  | 여      | 예체능계 | 대학교     | 무        | 친구             | 불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10     | .4955  | 여      | 인문계  | 대학교     | 무        | 친구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19     | .4233  | 남      | 자연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천주교   | 자취       |
|        | 28     | .3626  | 남      | 자연계  | 고등학교    | 유        | 친구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type 2 | 16     | 1.3440 | 여    | 사회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 24     |        | 1.3081 | 남      | 자연계  | 중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자취       |
| 5      |        | 1.1539 | 남      | 사회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27     |        | 1.1228 | 여      | 의학계  | 대학교     | 유        | 친구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15     |        | 1.0294 | 여      | 의학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20     |        | .9261  | 남      | 자연계  | 대학교     | 유        | 선배             | 무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12     |        | .8683  | 여      | 사회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자취       |
| 23     |        | .8136  | 여      | 의학계  | 대학교     | 무        | 친구             | 무교    | 친구와 자취   |
| 25     |        | .7058  | 남      | 자연계  | 고등학교    | 무        | 친구             | 기독교   | 하숙       |
| 26     |        | .5063  | 남      | 자연계  | 대학교     | 무        | 친구             | 무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type 3 | 3      | 3.0413 | 남      | 자연계  | 중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4      | 2.2294 | 남      | 사회계  | 고등학교    | 무        | 친구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21     | 1.4010 | 남      | 자연계  | 고등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하숙       |
|        | 11     | 1.0669 | 여      | 사회계  | 대학교     | 무        | 친구             | 천주교   | 자취       |
|        | 9      | .9408  | 여      | 인문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천주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8      | .9429  | 남      | 사회계  | 대학교     | 유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2      | .7975  | 남      | 자연계  | 고등학교    | 무        | 스스로시작          | 기독교   | 가족과함께 거주 |
|        | 1      | .6104  | 남      | 자연계  | 중학교     | 유        | 친구             | 무교    | 가족과함께 거주 |

배를 마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Z=-1.31$ ), 「효과가 높은 금연교육은 흡연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Z=-1.25$ ), 「내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 $Z=-1.21$ ),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Z=-1.04$ )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4 참조).

이 유형의 특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흡연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견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담배가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고 있다. 특히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흡연과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므로 자신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에 신경쓰지 않으며

사회차원에서의 금연운동이나 금연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또한 주위의 금연권유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여 흡연행위에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유형을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볼 때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항목은 「이성친구가 담배를 피울 때 더 친하게 될 것 같다」, 「흡연한다고 해서 더 안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흡연을 부정적으로 볼 때 나는 담배를 더욱 피고 싶다」,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 방에서만 담배를 피게 된다」,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이었다(표 5).

〈표 4〉 고착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 항목<br>번호 | 진 술 항 목                          | 표준점수<br>(Z-Score) |
|----------|----------------------------------|-------------------|
| 4        |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 2.05              |
| 28       | 흡연자가 담배피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   | 1.62              |
| 12       | 술먹을 때 항상 담배가 피고 싶다.              | 1.58              |
| 30       | 과로움을 잊고 싶을 때 담배는 도움이 된다.         | 1.44              |
| 5        | 여성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 1.43              |
| 18       | 남이 담배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        | 1.15              |
| 13       |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된다.    | 1.13              |
| 37       | 엄마가 되기 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 1.06              |
| 24       | 흡연한다고 해서 더 암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 .93               |
| 36       | 담배는 살 때 드는 돈이 아깝다.               | -.90              |
| 8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싶다.      | -.93              |
| 6        | 여성 흡연자는 용기있는 여성이다.               | -.95              |
| 21       |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 -1.04             |
| 14       | 담배를 피운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1.11             |
| 31       | 담배를 숨어서 피 때 죄책감을 느낀다.            | -1.17             |
| 23       | 내 몸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  | -1.21             |
| 33       | 효과가 높은 금연교육은 흡연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25             |
| 29       | 한국도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 -1.31             |
| 16       | 텔레비전의 여성흡연 장면은 꼴불견이다.            | -1.32             |
| 3        | 사회는 흡연자의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 -1.39             |
| 27       |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 -1.47             |

또한 1유형이 다른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를 나타낸 항목은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효과가 높은 금연교육은 흡연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는 흡연자의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담배를 피운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였다(표 5).

즉 1유형은 사회의 여성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항심을 가지고 있고 이성의 흡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은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각하며 여성흡연을 지지하며 주로 흡연은 혼자있을 때 행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1유형에 속한 12명의 대상사 중 8명이 여성흡연자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1유형은 대부분 여성 흡연자로 다른 유형에 비해 흡연 문제를 건강과의 관련성 보다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제기된 문제로 보므로 사회의 금연운동, 금연교육, 권유나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흡연을 중단하지는 않으려는 강한 고착되어진 흡연의지를 나타낸다.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를 나타낸 30여(인자가중치 : 1.5448)는 “고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우

면 고민이 연기에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였고 흡연은 자기 자신의 선택일 뿐 남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1유형은 상대방의 흡연에 대해 상관치 않으며 자신의 생활방식으로서의 흡연행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인자가중치 1.4793을 나타낸 29여도 “담배는 일종의 기호품들이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양하므로 자신은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9여와 30여는 담배 냄새가 몸에 찌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 남성흡연자와 달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로 인해 자신의 흡연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흡연에 대한 남녀 차별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도 여성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유형은 흡연을 건강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미 사회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흡연과 암발생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사회나 주위의 금연권유에 응하지 않고 흡연을 개인 즉한 인간으로써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므로 1유형을 고착형이라 명명하였다.

2) 제 2유형 : 주저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이었고 금연 시도 경험자가 10명 중 6명이었으며 10명중 8명이 대학교때 흡연을 처음 시도하였다.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긍정적 동의 즉, 찬성한 진술문은 「엄마가 되기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Z=1.79), 「살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좋지 못하다」(Z=1.63),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Z=1.56),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Z=1.55),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Z=1.20)이었다. 또한 가장 부정적 동의를 나타낸 진술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쉽다」(Z=-1.85),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Z=-1.52), 「여성 흡연자는 용기있는 여성이다」(Z=-1.47), 「흡연한다고 해서 더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Z=-1.38), 「점심값이 없어 굶어도 담배는 사야된다」(Z=-.99)였다(표 6).

〈표 5〉 고착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 항목 | 높게 동의한 진술문                          | 제 1유형의 표준점수 |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 차이    |
|----|-------------------------------------|-------------|---------------|-------|
| 26 | 이성친구가 함께 담배를 필 때 더 친하게 될 것 같다.      | .367        | -1.401        | 1.768 |
| 24 | 흡연한다고 해서 더 암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 .930        | -.554         | 1.483 |
| 2  | 사람들이 흡연을 부정적으로 볼 때 나는 담배를 더욱 피고 싶다. | .554        | -.877         | 1.431 |
| 19 |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방에서만 담배를 피게 된다.        | .013        | -1.138        | 1.151 |
| 34 |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  | .159        | -.875         | 1.033 |
| 15 | 나는 담배를 피면 집중이 잘되는 것 같다.             | .458        | -.553         | 1.001 |
| 5  | 여성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1.433       | .568          | .865  |

| 항목 | 낮게 동의한 진술문                       | 제 1유형의 표준점수 |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 차이     |
|----|----------------------------------|-------------|---------------|--------|
| 7  |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 .443        | 1.543         | -1.100 |
| 21 |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 -1.037      | .125          | -1.161 |
| 14 | 담배를 피운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1.113      | .283          | -1.396 |
| 3  | 사회는 흡연자의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 -1.387      | .083          | -1.470 |
| 33 | 효과가 높은 금연교육은 흡연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251      | .231          | -1.482 |
| 27 |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 -1.474      | .747          | -2.221 |

〈표 6〉 주저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 항목 번호 | 진술 항목                           | 표준점수 (Z-Score) |
|-------|---------------------------------|----------------|
| 37    | 엄마가 되기 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 1.79           |
| 25    | 살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좋지 못하다.       | 1.63           |
| 7     |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 1.56           |
| 4     |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 1.55           |
| 35    | 대중매체의 미화된 흡연장면은 흡연자를 증가시킬 것 같다. | 1.33           |
| 27    |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 1.20           |
| 1     | 담배는 호기심에 장난삼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 같다.  | 1.14           |
| 28    | 흡연자가 담배 피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 | .98            |
| 21    |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 .94            |
| 30    | 피로움을 잊고 싶을 때 담배는 도움이 된다.        | .73            |
| 15    | 나는 담배를 피면 집중이 잘되는 것 같다.         | -.79           |
| 16    | 텔레비전의 여성흡연 장면은 꼴불견이다.           | -.91           |



〈표 6〉 계속

| 항목<br>번호 | 진 술 항 목                             | 표준점수<br>(Z-Score) |
|----------|-------------------------------------|-------------------|
| 23       | 내몸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      | -.91              |
| 2        | 사람들이 흡연을 부정적으로 볼 때 나는 담배를 더욱 피고 싶다. | -.93              |
| 20       | 점심값이 없어 굶어도 담배는 사야된다.               | -.99              |
| 26       | 이성친구가 함께 담배를 필 때 더 친하게 될 것 같다.      | -1.02             |
| 31       | 담배를 숨어서 필 때 죄책감을 느낀다.               | -1.17             |
| 24       | 흡연한다고 해서 더 맘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 -1.38             |
| 38       | 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어 보인다.            | -1.43             |
| 6        | 여성 흡연자는 용기있는 여성이다.                  | -1.47             |
| 34       |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  | -1.52             |
| 8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싶다.         | -1.85             |

제 2유형의 경우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여자는 엄마가 되기전에 담배를 끊어야 하고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고 흡연 때문에 맘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또한 여성이 살을 빼기 위해 흡연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흡연보다 밥먹는 것이 우선임을 나타내며 여성 흡연은

인정하지만 여성 흡연자가 용기가 있는 여성은 아니라고 하였다.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지각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주저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 항목 | 높게 동의한 진술문                       | 제 1유형의<br>표준점수 | 다른유형<br>의 평균<br>표준점수 | 차이    |
|----|----------------------------------|----------------|----------------------|-------|
| 21 | 누가 옆에서 금연하도록 권한다면 담배를 끊을 것이다.    | .936           | -.862                | 1.798 |
| 27 | 담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 1.196          | -.588                | 1.784 |
| 35 | 대중매체의 미화된 흡연장면은 흡연자를 증가시킬 것 같다.  | 1.329          | -.087                | 1.416 |
| 33 | 효과가 높은 금연교육은 흡연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637           | -.714                | 1.351 |
| 22 | 담배는 체질에 맞아야만 필 수 있다.             | .351           | -.693                | 1.044 |
| 25 | 살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좋지 못하다.        | 1.633          | .649                 | .984  |
| 3  | 사회는 흡연자의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 .231           | -.726                | .956  |

| 항목 | 낮게 동의한 진술문                         | 제 1유형의<br>표준점수 | 다른유형<br>의 평균<br>표준점수 | 차이     |
|----|------------------------------------|----------------|----------------------|--------|
| 13 |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된다.       | .235           | 1.424                | -1.189 |
| 5  | 여성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 -.072          | 1.320                | -1.393 |
| 18 | 남이 담배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          | -.040          | 1.379                | -1.419 |
| 34 | 나는 젊기 때문에 흡연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지는 않다. | -1.520         | -.035                | -1.485 |
| 20 | 점심값이 없어 굶어도 담배는 사야된다.              | -.991          | .561                 | -1.552 |
| 24 | 흡연한다고 해서 더 맘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 -1.380         | .601                 | -1.981 |

제 1, 제 3유형에 비해 제 2유형은 타인의 금연권유에 따를 것임을 강하게 표현했으며 담배로 인해 건강이 나빠질까봐, 맘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자신은 젊지만 젊다는 점이 흡연의 건강상 미치는 해악을 피할수 없음을 강하게 지각한다. 또한 사회차원의 금연운동과 효

과가 높은 금연교육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고 매스컴의 역할이 흡연자의 수적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각하고 있다.

즉 2유형은 흡연과 건강의 관계,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자기 의지가 약하여 흡연

과 금연중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즉 고착된 흡연가는 아니나 현재는 사회나 주위의 흡연 분위기에 따라 흡연을 하면서도 금연을 위한 주위여건이 잘 조성되면 앞으로 금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자기 의지가 약하여 의사결정을 명확히 못하는 유형이므로 주저형이라 명명하였다.

### 3) 제 3유형 : 놀이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8명으로 남자 6명, 여자가 2명이었고 8명 중 5명이 이미 고등학교 이전부터 흡연해 온 남성 흡연자이다(표 3).

이 유형이 가장 찬성한 유형은 진술문은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Z=1.67$ ), 「남이 담배 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 $Z=1.62$ ), 「할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된다」( $Z=1.60$ ), 「술먹을 때 항상 담배가 피고 싶다」( $Z=1.55$ ),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Z=1.54$ ), 「엄마가 되기 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Z=1.04$ )였다. 또한 이 유형이 가장 반대한 진술문은 「이성친구가 담배를 필 때 더 친하게 될 같다」( $Z=-1.79$ ),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방에서만 담배를 피게 된다」( $Z=-1.50$ ), 「담배를 숨어서 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Z=-1.44$ ), 「담배는 체질에 맞아야만 필수 있다」( $Z=-1.32$ )였다.

〈표 8〉 놀이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 항목<br>번호 | 진 술 항 목                                | 표준점수<br>(Z-Score) |
|----------|--|-------------------|
| 13       |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된다.          | 1.71              |
| 4        |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 1.67              |
| 18       | 남이 담배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              | 1.61              |
| 12       |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 1.53              |
| 7        |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다.                        | 1.53              |
| 5        | 여성흡연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 1.21              |
| 37       | 엄마가 되기 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 1.06              |
| 25       | 살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은 좋지 못하다.              | 1.05              |
| 1        | 담배는 호기심에 장난삼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 같다.         | .79               |
| 28       | 흡연자가 담배피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         | .78               |
| 11       | 식후에 피는 담배는 소화에도움이 되지 않는다.              | -.90              |
| 36       | 담배살 때 드는 돈이 아깝다.                       | -.95              |
| 32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단속은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07             |
| 8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싶다.            | -1.26             |
| 38       | 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어 보인다.               | -1.28             |
| 29       | 한국도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 -1.30             |
| 22       | 담배는 체질에 맞아야만 필수 있다.                    | -1.32             |
| 31       | 담배를 숨어서 필 때 죄책감을 느낀다.                  | -1.45             |
| 19       |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방에서만 담배를 피게 된다.           | -1.51             |
| 26       | 이성친구가 함께 담배를 필 때 더 친하게 된다.             | -1.78             |

이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남이 필 때,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술먹을 때 습관적으로 흡연하게 되며 이성의 흡연을 강하게 부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숨어서 남이 안볼 때 흡연하지 않으며 체질에 꼭 맞아야만 흡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응답하였다. 이 유형의 대부분이 남성흡연자이며 이미 흡연은 고등학교 이전에 부

터 행해진 대상자들이므로 이미 흡연이 생활화 되어 있어 무리한 상황이나 음주할 때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흡연이 이루어진다.

제 3 유형이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표 9).

〈표 9〉 놀이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 항목 | 높게 동의한 진술문                     | 제 1유형의 표준점수 |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 차이     |
|----|--------------------------------|-------------|---------------|--------|
| 23 | 내몸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 | .207        | -1.064        | 1.271  |
| 6  | 여성 흡연자는 용기있는 여성이다.             | -.127       | -1.212        | 1.085  |
| 18 | 남이 담배피는 것을 보면 나도 피고 싶어진다.      | 1.605       | .556          | 1.049  |
| 13 |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된다.   | 1.715       | .684          | -1.031 |
| 16 | 텔레비전의 여성흡연 장면은 꼴불견이다.          | -.150       | -1.114        | .962   |
| 10 | 담배는 내 생활의 일부이다.                | .592        | -.018         | .610   |

| 항목 | 낮게 동의한 진술문                             | 제 1유형의 표준점수 | 다른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 차이     |
|----|--|-------------|---------------|--------|
| 19 | 나는 아무도 없을 때 내방에서만 담배를 피게 된다.           | -1.510      | -.376         | -1.134 |
| 32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단속은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066      | .258          | -1.324 |
| 26 | 이성친구가 함께 담배를 피 때 더 친하게 될 것 같다.         | -1.783      | -.326         | -1.456 |
| 22 | 담배는 체질에 맞아야만 필 수 있다.                   | -1.322      | .143          | -1.465 |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유형의 경우 대부분 흡연을 장기간 지속해 온 남성흡연자이므로 유형 1의 여성흡연자처럼 몸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며 여성흡연에 대해 다른 유형에 비해 중립적이다. 또한 유형 1과 2에 비해 담배를 심심할 때 손이 가는 생활의 일부로 지각하고 있고 공공장소의 흡연단속을 반대하며 스스로 남성이므로 체질에 맞지 않아도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지각한다.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를 나타낸 3남(인자가중치 : 3.0413)은 중학교때부터 흡연해 왔고 “입이 심심할 때 흡연하고 만지작 거릴 것이 없고 손이 허전할 때 흡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유형 3은 별 의미없이 하나의 놀이로 흡연하므로 놀이형으로 명명하였다.

4)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공통적 견해

대학생의 흡연행위와 관련된 진술문 중 세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 즉 대부분의 대학생이 자신의 흡연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대학생은 흡연을 스스로 택한 권리로 지각하며 여성 특히 엄마는 2세를 위해 금연해야 하고 음주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흡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한국 흡연자는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으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금연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역시 흡연을 타인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표 10〉 세 유형간의 일치점이 높은 진술문

| 항목 번호 | 진술 항목                           | 표준점수 (Z-Score) |
|-------|---------------------------------|----------------|
| 4     |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 1.76           |
| 37    | 엄마가 되기전에 여자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        | 1.30           |
| 12    | 술먹을 때 항상 담배가 피고 싶다.             | 1.24           |
| 28    | 흡연자가 담배 피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 | 1.13           |
| 30    | 피로움을 잊고 싶을 때 담배는 도움이 된다.        | .97            |
| 29    | 한국도 미국처럼 담배를 마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 -1.00          |
| 38    | 대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어 보인다.        | -1.20          |
| 31    | 담배를 숨어서 피 때 죄책감을 느낀다.           | -1.26          |
| 8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권하고 싶다.     | -1.35          |

## V. 논 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는데 흡연행위는 행위자가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성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제 1유형인 고착형의 경우 대부분 여성흡연자로 흡연에 대한 의지, 태도가 확고하며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여성흡연자가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여성흡연자는 흡연을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성차별의 대표물로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흡연자가 남성흡연자에 비해 흡연을 심각한 건강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금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된다(신, 1992 ; 김외, 1997 ; 이외, 1992).

또한 1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흡연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흡연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을 시도하며 지속한다는 이외(1992)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김외(1997)의 연구에서도 여대생 흡연자는 심리적인 긴장 상황에 놓일 때 흡연하게 되며 남성흡연에 대한 여성의 도전적인 흡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대생 흡연자가 대부분인 제 1유형의 경우 타인의 금연권유나 사회의 금연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짐으로써 흡연에 대한 반항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Clyton(1991)의 흡연행위에 대한 성별의 차이 연구에서도 여성흡연자는 자기확신, 사회경험, 반항심으로 흡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제 1유형의 경우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보다 성차별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불이익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 1유형의 경우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흡연자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여 성 차이에 대한 이해와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1유형은 사회의 흡연규제에 반대하므로 금연의 장점과 성차별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주어 금연에 대해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교육 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2유형의 경우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지각하며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의지가 약하

여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금연과 흡연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형이므로 먼저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실제 실행가능한 금연전략을 수립하여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며 지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동료학생, 친구에게 금연을 시킨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연을 유지하도록 관계망을 형성하여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금연으로 얻는 건강상, 경제적인 이익들을 이미지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금연의지를 확고하게 하며 흡연욕구를 느낄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교육하며 주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금연의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제 3유형은 흡연을 하나의 놀이로써 지각하고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유형인데 장기간의 흡연으로 습관성이 이미 형성된 상태이다. 이 유형은 객관적으로는 여성흡연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자신의 이성친구의 흡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전형적인 남성흡연관을 나타낸다. 장기간 흡연해온 흡연자이므로 니코틴 중독형 흡연자로 분류될 수 있는데(김, 1987) 이러한 대상자의 경우 니코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연시 니코틴 대체 요법이 필요하며 금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신, 1992).

Rose(1991)은 금연하는 과정을 세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동기화 단계(motivational stage), 다음은 행동적 변화(Behavioral change) 단계, 마지막 단계는 유지(maintenance) 단계이다. 또한 금연의지에 단계를 금연계획전 단계(Precontemplative), 즉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만 동기부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단계와 금연계획 단계(contemplative), 금연실행단계(maintenance)로 나누고 있다(Richart, Hurt, Lowell, 1992).

세가지 유형 모두에게서 공통적인 흡연행위에 대한 견해를 보면 자신은 흡연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권하고 싶지 않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흡연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개개인에 따라 흡연의 이유가 다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연 교육프로그램에 금연의지와 금연동기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 유형에 따라 그 접근방법을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해 대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흡연행위의 주관성을 분석하였고 Q유형의 분석을 행하였다. 제 1 유형은 고착형으로 자신의 흡연을 한 인간으로써 여성도 누릴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며 흡연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타인의 금연권유나 사회의 금연권유에 따르지 않으려는 흡연고착형이다.

제 2유형은 주저형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지가 약하여 흡연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금연을 위한 상황조성이 잘되면 금연도 할수 있는 유형이다.

제 3유형은 놀이형으로 장기간 흡연해온 흡연자이며 심심할 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유형이다.

세가지 유형모두 흡연을 스스로 택한 권리로 지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주할 때 흡연을 시도하며 사회의 흡연운동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각 유형의 흡연행위의 주관성의 구조에 기초한 흡연전략이 구축되어 질 때 대상자의 상호결정, 책임감, 독립성이 고려된 건강증진전략이 구축될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를 기초로 각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금연전략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한국인의 흡연행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청소년을 포함한 흡연자의 여러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관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김문실, 김애경(1997). 일부여대생의 흡연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2), 315-328.

김상철(1987). 금연대책. 대한의학협회지, 30(8), 853-837.

김애경(1994). 건강행위에 대한 한국 청년의 주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일순(1987). 흡연과 건강. 대한의학협회지, 30(8), 825-830.

김종성, 이민동, 각기우, 이혜리, 윤방부.(1989). 가족요인의 차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 양상. 가정의학회지, 10(5), 11-21.

김지연(1992). 일부 여자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흥규(1993). Q방법론의 과학정신탐구, Q방법론에 관한 연구발표회 자료, 한양대학교 언론문화 연구소.

맹광호(1988).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10(2), 138-145.

민병근, 이길홍(1976). 한국 청소년의 껌연양상. 중앙의대 교수논문집, 2, 330-338.

서 일(1988). 한국인의 흡연율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0(2).

신호철(1992). 가정의학 진료의 금연전략. 가정의학회지, 13(2), 101-105.

이성욱(1987). 흡연자의 건강신념과 흡연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수경(1987).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에 따른 요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창희, 서요숙, 조용준(1992). 가정의학과 외래환자의 흡연양상. 가정의학회지, 13(11).

전상임, 박용우, 김철환, 정유석 외(1992). 의사의 금연교육이 환자의 흡연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3(6).

지연옥(1988). 금연을 위한 교육방법별 접근이 흡연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정훈(1971). 지각심리학: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홍대식 역(1985). 사회심리학 이론. 서울: 박영사.

Anderson, M. R.(1985). Risk of lung cancer, chronic bronchitis, ischemic heartdisease and stroke on relation to type of cigarette smoke. J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9, 286-293.

Clayton, S.(199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J of social health, 61(3), 115-120.

Combs, A. W. & Snygg's, D.(1971).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Y: Harper & Brothers.

Fielding, J. E.(1985). Smoking: Health effects and control.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13(8), 555-56.

Gray N. L.(1990). A comprehensive analysis of factor influencing smo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 of Drug Education, 20(3), 247-255.

Health and Public Policy committee(1986). Position

- Paper : Methods for stopping Cigarette Smok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05, 281 – 291.
- Hirayama. T et al.(1981). Non-smoking wives of heavy smoking have a higher risk of cancer : A Study of Japan, 118(7), 521 – 525.
- Kirscht, J. P. et al(1987). Cigarette smoking and change in smoking among a cohort of michigan adults. AJPH, nn(4), 501 – 502.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1993). Clearing the Air How to Quit smoking and Quit for keeps. National Cancer Institute.
- Kolfke T. E et al(1988). Attrebutes of suceeful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s in medical practice : A meta-analysis of 39 controlled trials. JAMA, 259(19) ; 2883 – 2889.
- Rose M. A.(1991). Intervention strategy for smoking cessation-the role of oncology, Cancer Nursing, 14(5), 225 – 231.
- Stephenson, W.(1953). The study of behavior : a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Abstract –

Key concept : University Students, Smoking Behavior

## A Study into Pattern of Smo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im, Moon Sil\* · Kim, Ae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ubjective opinions related to of smo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ith a history of smoking.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Feb, 1. 1996 to Sep. 10. 1997.

The research method used was Q-methodology. The process of the research was as follows :

1. Collection of concourse :  
The statement of self-reference was derived from face to face interviews with 50 university students. Statement were categorized by researcher according to semantics.
2. Extraction of Q-sample :  
38 of the self-reference statements from the 32 categories of the Q-population were selected.
3. Selection of P-sample :  
30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elected by consideration of diversity i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4. Based on a 1 to 9 point scale, the selected university students were made to participate in Q-sorting.
5. Analysis of Q-type was obtained by use of the QUAN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as follows :

There are three types of smoking behavior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1. The first type focused o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to smoke and the lack of recognition of smoking behavior as a health hazard.
2. The second type cared about smoking behavior as a hazard to health.
3. The third type was habitual smoker. They are bored and smoke habitu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decreasing the incidence of smoking of university students.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Dan Kook University